

“지역 행복을 지키는 기둥으로 20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아름다운 바다와 오륙도 섬을 부산 용호동의 상징으로 떠올린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나환자 집성촌이란 용호농장이 사라진 후에도 그곳은 혐오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 낙후 지역이었다. 특히 용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용호 2동은 철거민밀집지역에 노인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 복지가 절실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지원·이하 용호복지관)이 20년 동안 묵묵히 마을을 지켜왔다.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자리한다는 오해로 복지관 건립조차도 반대에 부딪혔던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우뚝 서서 마을의 행복도우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용호복지관은 3월 4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후원회 이사 능후 스님, 이종철 남구청장 및 자원 봉사자, 지역민 300여명이 자리해 함께 축하했다.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의 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은 2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물 상영, 후원자, 자원 봉사자 및 장기근속 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장기근속 직원 표창은 이준성 관장, 서은혜 부

관장, 오경래 시설과장, 배기숙 조리실장이 받았다. 우수 자원봉사자 공로패는 방양인 자원봉사자, 진영에 자원봉사자, 민군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로패는 이만재 시민여객 대표가 받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용호복지관은 비전 2026 선포식을 열어 향후 10년의 약속과 계획을 발표했다. 용호복지관의 비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 △유기

- 1996년 개관, 혐오시설 오히려 마을 복지 주관 행복 도우미로
- 2015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향후 10년 비전 선포 소통 강조

적으로 주민이 디자인하는 행복한 복지관 △상생네트워크로 지역복지거점이 되는 활기찬 복지관이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단순한 생활복지를 넘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로 행복을 안겨주는 선봉장이 되었다”며 “그동안 말씀해주신 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복지관을 다녀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이준성 관장은 “20주년을 맞아 다시



개관 20주년을 맞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향후 10년 모습을 설계 발표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로 더욱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성년에 걸맞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누구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며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호복지관은 ‘더불어 실현해 나가는 평등세상’이라는 미션아래 1996년 3월 개관했다. 2000년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2003년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봉사과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경영 우수기관 선정, 2009년 아동발달상담센터를 확대해 언어, 미술, 심리, 감각통합 치료 등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용호복지관은 그간의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4회에 걸쳐 보

건복지부 종합평가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치매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중인 방문요양센터와 주간야간보호센터 역시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한편, 개관 20주년 기념하기 위해 6월 2일 ‘지역복지거점 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역할 재정립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용호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주민복지증진의 중심이 되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성미 기자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 다례제

은혜사 4일 봉행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주지 돈관은 3월 4일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다례제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는 은혜사 조실 해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및 문도·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이시명 선화여교 교장, 송오생 은혜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고경 스님의 다례제에 문도, 문중스님들과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다례제가 되도록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실 해인 스님은 “문도, 문중 스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경 법전 대종사는 흥은 기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당대 남방대강사로 명성을 떨쳤다. **신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는 3월 4일 고경 법전 대종사 70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했다.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를 배운다

한희불교복지대학, 35기 호스피스 교육과정 개강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들의 산실, 한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한희불교복지대학은 ‘제35기 호스피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5일~5월 27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5시이다. 교육내용은 △생명의 의미와 가치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말기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편마비 환자의 물리치료 요법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치매환자 간호,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경락이론 및 마

사지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병원간호 및 기본 간호실습 △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산성질환자 간호 등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3월 25일 오후 2시 개강식에서는 한희불교복지대학장 지현 스님의 특별강연회가 개최된다. 주제는 ‘이해와 사랑’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 및 봉사활동과 유급활동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051)203-9436

하성미 기자

연지사 ‘평등’ 주제로 제1회 수록 무차 법회

울산 연지사(주지 성천)가 대평등을 주제로 ‘제1회 수록 무차 법회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3월 5일 개최된 이번 법회는 주지 성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성천 스님은 “울산은 옛날부터 바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역을 하게 목숨을 잃은 척박한 곳이었다”며 “이번 수록대제와 방생 법회를 처음으로 봉행 한 것은 이곳 지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길 발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연지사는 3월 5일 ‘제1회 수록 무차 법회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와 인재 불사 위한 전진기지”

해림사, 창건 이래 첫 수계 법회

부산 해림사(회주 동림)가 3월 9일 창건 이래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그동안 해림사는 기도와 정기법회로만 운영됐지만 이번 수계법회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신하는 기도처이자 청정 계율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을 전제대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수계법회에는 불자 200여명이 참석해 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를 축하하며 부처님 사리를 진건하는 자리도 열렸다. 불자들이 친견한 부처님 사리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문화원에 선물한 사리이다. 불자들은 수계를 받은 것도 기쁜 일인데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함으로써 더욱 신심이 나고 환희심으로 기쁨이 가득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주 동림 스님은 “명예, 재물, 사랑, 지식 등은 이 몸을 위한 것이다. 가치를



해림사는 창건 이래 첫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하는 청정도량으로 나아가고 포교와 인재 불사를 위한 사찰로 거듭 날 것을 천명했다.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의지를 두는 것이 계의 시작이다”며 “오계를 지키면 안정을 얻고 지혜를 얻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다. 계를 받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계를 수지함으로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습관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좋은 인연 만나는 것이다”며 “오계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살이 되는 첫 시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해림사는 앞으로 수행을 통한 청정도량을 천명하고 인재불사와 포교를 위해서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림사는 3월 12일 ‘해림사 초중고 학생법회’를 창립해 불법 흥포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해림사는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기부금도 회사 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선수행 통해 찾아가는 행복의 길”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수행 학교 개강

동안거는 해제 됐지만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새롭게 방부를 들었다. 캠퍼스 내에 선수행 학교가 열렸기 때문이다.

3월9일부터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제 5기 선수행학교’에는 지역민 및 불자 50여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원장 수진 스님은 앉는 자세부터 화두와 경책 받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도 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에 대해 설명하며 처음 접

하는 초심자를 위해 직접 ‘이 몸을 이끌고 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도 내리며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천하에 학문과 부귀와 명예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선 수행을 통해 내려놓음을 알고 참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명대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는 종립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한 캠퍼스 내 수행공간이다. **하성미 기자**

LEADER

社團法人 世界佛敎 法王廳

수 많은 불교국가 중에 승려 수 60 ~ 65만 명의 불교나라 미얀마 연방 승가회 (미얀마 종정스님)회장을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봉행하였고 11월 1일에는 모든 각료들의 임명을 법왕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스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각 나라 승가 최고스님들께서 법왕을 보필하는 상임 최고 장로로서의 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r 우 꾸미라 (세계불교도의 법왕)

세계불교 위상과 단합된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없이 불제자로서의 인품, 인성도 인격도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부합하면 동참하다가 임명장만 받고는 참여도 아니하고 자신의 사찰에 임명장 걸어놓고 신도들에게 자랑하면서도 동참은 커녕 소리없이 사라지는 자칭 큰스님들 수 없이 겪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같이 할 종단, 출가자, 재가자 모두 포함한 사부대중**에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대표 전화번호 : 011-229-6061. 기획실 : 010-4467-9600